

# 로마족

(ROMA)

2013-2014 선교학교 교재 보충 자료

## 유럽의 로마족

폴 제프리  
(PAUL JEFFREY)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

실천하는 믿음 · 소망 · 사랑

그리스 경찰이 2013년 10월에 무기류와 약물을 찾기 위해 로마족 캠프를 수색했을 때 그들은 금발 머리의 초록색 눈을 가진 마리아라는 아이를 만나게 되었다. 경찰은 그 아이가 납치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로마족 부모들을 체포하고 그 아이를 고아원에 넘겨 주었다.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그 부부가 마리아의 친부모가 아닌 것이 밝혀 졌고, 가난한 불가리아의 로마족 여성이 너무 가난해서 키울수 없어 자기들에게 맡겼다고 그 부모는 고백했다. 이 사실은 전부 사실로 밝혀졌다. 그러나 그리스 신문은 마리아에게 “금발의 천사”라는 별명을 붙여주고 큰 기사로 신문에 “아이들을 납치하는 로마족!”이라는 표제 밑에 “아동 납치 경보: 위험한 로마족들이 어린아이들을 훔쳐 간다!”고 적어 놓았다.<sup>1</sup>

마리아와 그녀의 가족을 둘러싼 이런 이야기는 유럽의 가장 수가 많고 가장 차별대우를 받는 소수 민족인 로마족에 대한 인종차별적인 편견이 유럽 전역에 걸쳐서 로마족 본인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팽배하다는 것을 보여주고있다. 로마족이 집단 학살을 당한지 60년이 지난 이후에도 유럽에서는 아직도 그들에 대한 비방을 근절하고 로마족을 주류 사회에 어떻게 통합시키는 일을 시작할 수 있을까 논쟁하고 있다

그리스에서 이런 사건이 있었다. 파나지오티스 디미트라스(Panagiotis Dimitras)는 아테네에 기반을 둔 인권 그룹인 그리 헬싱키 모니터(Greek Helsinki Monitor)의 직원인데, 영국 신문인 인디펜던트(*The Independent*)와의 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 마리아의 양부모에 대한 “말도 안되는 개탄스러운” 체포는 “[그 부모들이] 단지 로마족이라는 것 때문에... 그리스 정부 당국이 인종차별적인 편견을 가졌기 때문이다.”<sup>2</sup>

마리아는 경찰이 인종 집단과 이주자들에 대한 정보 수집을 위해 전국적인 경찰 활동의 일환으로 파르살라 로마족 정착지에 대한 대대적인 수색 기간 동안에 발견되었다. 2013년 첫 9개월 동안에 그리스 경찰은 전국적으로 1,131개의 로마족 정착지를 수색했고 그 기간 동안에 19,067 명이 임시로 수감되었으며 1,305 명이 이어서 여러 가지 죄목으로 체포되고 기소되었다.<sup>3</sup> 아이러니컬하게도 경찰에서는 이 작전의 이름을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환대의 신인 제니오스 제우스 작전(“Operation Xenios Zeus”)이라고 불렀다.

이러한 인종차별주의적인 반응은 그리스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로마족에 대한 오랜 편견은 국경도 없이 전 세계로 빨리 퍼져나갔다. 미국과 영국에 있는 가족들 가운데 자기 딸이 실종된 사람들은 마리아가 자기 딸일 가능성이 있는지 알고 싶어서 당국에 연락하였다.

마리아에 관한 뉴스가 보도된지 몇 일이 되지 않아서 마녀 사냥이 시작되었다. 공무원들이나 일반인들이 여러 나라에서 로마족 정착지를 찾아다니면서 의심스럽게 보이는 백인 아이들을 찾았다. 아일랜드에서는 더블린에 사는 한 여인이 그리스 여자아이에 관한 텔레비 뉴스를 보고 바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지방 텔레비에 제보를 하면서 “한 작은 여자 아이가 탈라트(Tallaght [더블린 교외])에 있는 로마족 집에 사는데 머리는 금발이고 파란 눈을 가졌다”고 적었다. 몇 시간이 되지 않아 7살 된 그 여자아이는 그녀의 가족으로부터 분리되어 아일랜드 아동 보호국 직원에게 넘겨졌다. 그것은 부모가 그 아이의 출생증명서를 찾을 수 없어서 유효기간이 지난 여권만 내 놓았기 때문이었다. 그 사건에 관한 뉴스가 보도되자 이번에는 더블린에 사는 다른 사람이 경찰에 더블린 서부의 로마족 집에 사는 2살난 금발의 소년에 대해 제보하였다. 경찰은 그 아이를 바로 그 집에서 데리고 나왔다.<sup>4</sup>

두 아이들은 유전자 감식 결과 친자임이 판명되어 결국 가족들의 품으로 돌려 보내졌지만 인권운동가들은 이 사건들을 통하여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 힘을 발휘할 수 있느냐를 보여주는 예라고 지적했다. “이런 일이 소위 문명화되고 발달된 서방의 국가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참 놀랍고 믿어지지 않는 느낌이 들어요”라고 마틴 콜린스(Martin Collins)는 자기의 반응을 피력하였다. 그는 로마족과 아일랜드 여행자들(로마족과는 구별되지만 역시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있는 더블린 지역의 파베 포인트(Pavee Point)의 공동 책임자인데 “이 일은 명백하게 인종차별적인 정보 수집 활동이며 위험한 것입니다”라고 말했다.<sup>5</sup>

대미안 르 바스(Damian Le Bas)는 런던의 한 잡지사인 트래블러스 타임즈(*Travellers' Times*)의 편집장인데 그렇게 속단한 것은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나는 로마족 출신의 금발입니다. 내 머리색과 눈의 색은 나의 친척들과는 달라요. 우리가 다 같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우리는 이탈리아 사람들이 다 다른 것처럼 다 다르게 생겼지요. 우리가 다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 보려는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sup>6</sup>

### 속죄양이 된 로마족

이사벨 폰세카(Isabel Fonseca)는 <나를 선채로 묻어라:집시족과 그들의 여정(*Bury Me Standing: The Gypsies and Their Journey*)>이라는 책에서 이러한 최근의 일련의 사태들은 집시족들이 언제나 불법적인 활동에 개입되어 왔다는 선입견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금발의 집시족이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많아요,” 폰세카(Fonseca)는 <여기 그리고 지금(*Here & Now*)>이라는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그렇게 말했다. 그러나 사람들 사이에 널리 퍼진 편견은 그 사실을 무시하고 “집시들이 밤에 와서 금발의 아이들을 훔쳐간다”는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선입견을 더 따른다고 말했다.<sup>7</sup>

폰세카는 그리스의 사건이 특별히 경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왜냐하면 “그것은 로마족이 유전적으로 범죄할 가능성이 많다는 증거가 포착되었다는 일종의 그것보라 하는 편견을 보여주는 예”이기 때문이다. 현재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리스와 같은 나라에서는 로마족이 “자기들의 사회에 있는 모든 어려움을 위한 손쉬운 속죄양”으로 취급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말했다.<sup>8</sup>

특정 인종 집단이 저질렀다고 여겨진 범죄에 대해 개인들을 처단하는 것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일이다. 젤주코 요바노빅(Zeljko Jovanovic)은 헝가리(Hungary)에 있는 오픈 소사이어티 파운데이션의 로마족 담당자이다(Open Society Foundation's Roma Initiatives Office). 그리스 사건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속단한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로마족을 집단적으로 더 강력하게 비난할 수 있는 완벽한 이유”를 준 것이라고 말했다.<sup>9</sup>

더 서글픈 사실이라고 그가 지적하는 것은 로마족들이 범죄행위의 피해자가 되어 1998-2002년 사이에 아테네에 있는 정부가 운영하는 기관에서 알바니아 로마족 아이들 661명 가운데 502명이 없어졌는데도 언론 기관에서 보도 조차 하지 않은 점이다. 정부가 수백명의 로마족 아이들을 그들의 가족들로부터 데리고 간 일은 문제가 되지 않는 반면에 한 금발의 여자 아이가 로마족에 의해 납치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신문의 1면 기사가 된다.

그러한 손쉬운 속죄양 만들기는 자주 있는 일이다. 프랑스 추수꾼들이 2013년에 숲속에서 야생 버섯을 예전만큼 찾지 못했을 때도 그들은 동유럽에서 넘어온 로마족 이주자들이 자기들 수확을 훔쳐서 한 밤 중에 몰래 스페인으로 운반해 간다고 비난했다. 버섯 지키는 용사들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심

지어 로마족들이 아주 귀한 곰팡이를 채취해 가는 바람에 다음 해의 버섯 수확까지도 망치고 있다고 엉뚱한 주장을 하기도 했다.<sup>10</sup>

“버섯에 대한 논쟁을 생각해 보면 원주민이 따든, 프랑스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따서 다른 나라로 가지고 가는 차이가 없지요”라고 토마스 카이퍼(Thomas Kuyper)는 <뉴욕타임즈>(The New York Times)기자 회견에서 말했다. 그는 버섯 생태학과 버섯 종류에 관한 전문가로 네덜란드의 와게닝엔(Wageningen) 대학의 교수이다. 버섯이 제대로 채취되지 못했다고 하는 주장은 자기들의 수확이 예전만 못하데 대한 분노와 다른 인종에 대한 두려움에서 오는 결과라고 말했다. 네덜란드에서도 독일과 폴란드에서 온 채집자들에 대해서 비슷한 태도를 가졌던 것을 볼 수 있다. “사람들이 버섯에 대해서 근심하는 건지, 아니면 외국인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이지요?” 카이퍼 교수는 되물었다.<sup>11</sup>

그러나 오늘날 유럽 연합의 팽창에 따라 “외국인”이라는 개념 자체가 유동적인 것이 되었다. 예를 들면 불가리아와 루마니아가 2007년에 유럽 연합에 가입되었는데, 그 말은 그 나라의 국민들이 유럽 연합 안에서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그들이 자유롭게 고용될 수 있는 법적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다. 서쪽으로 이주하는 많은 이들이 최저 임금의 일부만 주면서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려고 하는 고용주들의 처분에 따르고 있다.<sup>12</sup> 그러니까 많은 유럽의 로마족들이 전반적인 경제 불황이 가난한 사람들 모두에게 어려움을 주는 국내에서는 차별대우를 받고, 타 인종에 대한 공포증이 공공 정책이나 토론에 쉽게 끼어드는 새 정착지에서는 악성 인종 차별을 경험하게된다. 억압적인 정책들은 어느 정도는 계층간 경쟁때문에 생기는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 지역의 경제 위기에 밀려나면서 자신이 언제나 한 단계 밑으로 보고 있던 로마족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로마족을 경쟁자로 보게 되고 만약 로마족이 어떤 형태로든 지원을 받게 되면 화를 내게 되는 것이지요”라는 것이 토마스 로데미어(Thomas Rodemeyer)의 견해이다. 그는 중남부 유럽의 연합감리교회 로마족 선교회 책임자이다(Coordinator for Roma Ministries for The United Methodist Church in Central and Southern Europe).<sup>13</sup>

유럽 연합에 가입한 나라들은 고실업율에 대한 대중의 불만에 직면해서 “로마족들이 원하는 직업과 주택과 교육을 제공하는 것 보다는 그들에게 낙인을 찍고 그들을 쫓아내는 것이 더 쉽다는것을 알고 있다”라고 2013년 10월호 <뉴욕타임즈>(The New York Times) 사설은 말하고 있다.<sup>14</sup>

사태는 더 심각해지고있다. “그들 중의 많은 사람들이 유럽 연합의 시민이 된 이후로 그들의 생활 여건은 사실 점점 더 나빠지고 있다는 것은 정말 충격적이다. 동시에 대부분의 주민들의 태도는 유럽 거의 전역에서 더욱더 적대적이 되어가고있다. 이 두 경향이 서로 상승작용을 한다: 즉 소외는 경멸을 가져오고 경멸은 소외를 가져오게 되는것이다.” 이렇게 쓴 사람은 박애주의자인 조지 소로스(George Soros)인데 유럽에 있는 로마족의 곤궁을 묘사하면서 2013년 11월에 이렇게 적고 있다. “우리 솔직해 보자: 유럽에는 로마족의 문제가 있다. 그리고 그것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다. 그러나 그 문제와 그 문제의 악화는 둘 다 오랫동안 묵은 적개심과 지속적인 무관심의 잘못된 결합의 산물이다.”<sup>15</sup>

### “어쩌면 히틀러(Hitler)가 그들을 다 죽였어야 했다”

왜 로마족들이 자기 고향 산천을 떠나 서쪽으로 오게 되었는지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헝가리의 집권당인 피데츠(Fidesz)당의 공동 창시자인 졸트 베이어(Zsolt Bayer)의 말을 들어보면 된다. “상당수의 로마족들은 함께 살기 힘든 사람들이다. 그들은 사람들과 같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다. 이 로마족들은 짐승들이며 또 짐승처럼 행동한다. 저항에 부딪치면 그들은 살인을 한다. 그들은 인간의 대화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알아들을 수 없는 소음이 그들의 짐승의 해골에서 쏟아져 나올 뿐이다. 동시에 이 집시들은 어떻게 하면 허점이 많은 서양 세계의 ‘성취물’을 탈취할 수 있는 지를 이해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들은 관용보다는 보복을 해야 한다. 이 짐승들은 존재가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어떤 경우에도 이 문제는 해결되어야 한다—즉각적으로 그리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는 2013년 1월에 보수적인 일간지인 <헝가리 일보>(Magyar Hirlap)에 그렇게 적었다.<sup>16</sup>

베이어(Bayer)는 또한 <헝가리일보>(Magyar Hirlap)에서 유대인들을 “냄새나는 배설물.”이라고 부르고 있다.<sup>17</sup> 그러한 명백한 인종차별은 유대인들과 로마족의 운명이 유럽의 20세기에 나찌(Nazi) 정권하에 일어났던 죽음의 수용소와 켈레야 켈 수 없는 관계에 있음을 상기시켜 준다. 그런데 전후 유럽에서는 유대인 대학살은 유대인들에 대한 인종 혐오에 뿌리를 둔 것임을 상대적으로 즉각 시인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족에 대한 폭력에 대한 변명은 아무 도전도 받지 않은 채 그냥 존속하면서 우익쪽의 정치가들과 법집행자들은 그들의 범죄적인 행동 성향을 전제로 하며 강압적인 조치들이 정당화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2013년 7월에 프랑스 국회의원인 기요 부두레이(Gilles Bourdouleix)는 로마족의 무단 거주를 도전하면서 “어쩌면 히틀러(Hitler)가 그들을 다 죽였어야 했다”고 말한 것으로 기록되었다. 그는 나중에 사람들이 잘못 들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에서는 부두레이(Bourdouleix)가 “인류에 대한 범죄를 변호한 자”인지에 대한 초동 수사를 시작하였다. 그럴 경우 프랑스에서는 최고 4만 5천 유로의 벌금형이나 1년간 징역에 처할 수 있는 범죄가 되는 것이다.<sup>18</sup>

서부 유럽에서 로마족에 대한 점증하는 적대감은 그들이 외부인이라는 주장에 근거하고 있다. 유럽 연합은 그들의 지리적인 경계는 넓힐 수 있지만 유럽인들의 문화적인 개념을 확대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주장한다. “이 사람들은 피부가 검은 사람들이며 당신과 나와 같은 유럽인이 아니다”라고 리카르도 데 코라토(Riccardo De Corato)가 말한 바 있는데 그는 이태리 밀란(Milan, Italy)시의 부시장 보좌관으로서 2010년 자기 부서에서 로마족 캠프를 철수시킨 것에 대한 입장을 항변하면서 한 말이다.<sup>19</sup>

세계 은행에서 자금 지원을 받은 2005년 조사에 의하면 많은 유럽인들이 로마족에 대한 차별대우가 편견에서 오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무관심 하다고 대답하였다. “대다수의 견해는 로마족이 사회적으로 신분이 낮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은 자기들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비로마족계의 유럽인들이 로마족만을 위한 정부 보조금에 대해 강력한 반대를 표현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고 보고서는 적고 있다. 그러나 “다수 주민이라고 불리는 이들의 견해는 몇 가지 모순을 보이고 있다. 그들은 로마족에 대한 자신들의 견해를 매일 매일의 관찰에만 근거하고, 많은 사람들은 로마족들과 오직 피상적인 접촉만을 할 뿐이다. 모든 집단이 통합을 찬성하지만 로마족이 아닌 사람들은 특정한 통합 학교나 공동체의 예를 들면 주저한다. 로마족이 아닌 사람들은 로마족들이 분리를 선호하는 것이니까 통합을 위해서는 그들이 먼저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sup>20</sup> 등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부두레이(Bourdouleix)와 데 코라토(De Corato)같이 공공연히 적대감을 드러내는 정치인들의 연설과 그 보다는 조금 더 미묘하게 이야기하는 논객들 모두의 배경에는 로마족들이 자신들이 당하는 운명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이 있다고 하는 강력한 믿음이 있다. 그러한 정서는 분명히 수백년에 걸친 유럽의 역사를 무시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러한 태도는 또 정치적인 입장에 관계없이 드러난다. 독일에서는 로마족 이주민이 거주지를 찾으면 <독일을 위한 모임>(Pro Deutschland)이라고 불리는 반 이슬람 경향의 신나치주의에 관련된 사람들과 다른 극단주의 집단들이 베를린에 있는 집주인들에게 로마족에게 임대하지 말도록 종용한다. 그들은 로마족들이 도시의 복지 제도의 기금을 바닥내기 위해서 도시로 온 사람들이라고 주장하는 전단을 돌린다. 그러나 이런 우익논객들만이 로마족의 추방을 요구하는 사람들은 아니다. 진보 성향의 <슈피겔>(Der Spiegel) 잡지와 텔레비 프로그램도 복지 혜택으로 살면서도 자기들의 주거 지역을 쓰레기처럼 만든다고 소문이 난 로마족들이 주관하는 베를린 지역의 아파트 주거 지역을 “조사”하는 것을 특집으로 다룬 적이 있다.<sup>21</sup>

### “그 사람들은 가야 한다”

프랑스에서는 전직 대통령인 니콜라스 사르코지(Nicolas Sarkozy)가 동유럽으로 부터의 대량 추방으로 인한 로마족의 유입에 대해서 대응한 적이 있다. 그의 정부는 로마족 거주지를 철거하고 그들을 다시 동부 유럽으로 추방하면서 그들이 멀리 가서 다른 사람들의 문제가 되기를 바랬다. 그의 정책은 좌파의 많은 사람들과 그의 후계자인 프랑코아 올랑드(François Hollande)의 날카로운 비난을 받았다. 그러나 이 새로운 사회당 올랑드 대통령은 2012년 5월에 취임식 이후 자기 우파 전임자와 거의 같은 정책을 실시하였다. 2013년 7월과 8월 두 차례 걸쳐서 2,300명이 사는 22개의 로마족 거주지들이 프랑스 전역에 걸쳐서 철거되었다.

우파 인권운동가들의 비판에 대응하면서 올랑드의 내무부 장관인 마우엘 발스(Manuel Valls)는 로마족의 생활 풍습은 프랑스 사람들과 너무 달라서 통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들은 추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유럽 연합의 사법 위원(Justice Commissioner)이자 유럽 위원회의 부통령인 비비안느 레딩(Viviane Reding)은 프랑스가 로마족에 대한 취급을 완하지 않으면 제재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일부 평론가들은 올랑드의 정권이 로마족을 비난하게 된 것은 새로 등장하는 극우 민족전선당(National Front party)으로 넘어가기 쉬운 유권자들을 붙잡아 두기 위한 정책이라고 보았다. 정부 정책의 동기는 분명하지 않았지만 그 결과는 분명하였다.

“반복되는 강제 철거는 로마족의 건강과 교육과 적합한 생활 수준을 유지하는 능력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비공식적인 주거지에서 한 번 쫓겨날 때 마다 더욱 열악한 주거 환경에 처하게 되고 길거리에서 자게 되며 다른 임시 거처를 마련할 때까지 텐트에서 살게 된다.” 국제 사면 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의 유럽과 중앙 아시아 프로그램 책임자인 존 달루이젠(John Dalhuisen)은 이렇게 말했다. “강제 철거 과정에서 그들은 신분증이나 의료 진료 기록 등 종종 자신들의 소유물을 분실하게 되고, 많은 경우에 학업이나 진료가 중단되며 직업이나 지원을 상실하게 된다. 그렇다고해서 그들은 프랑스 법에 의해 적당한 보상을 받는 것도 아니다.”<sup>22</sup>

폰세카(Fonseca)는 프랑스 정부의 반응이 일반 시민들의 보편적인 좌절을 반영하는 것임을 인정한다. “프랑스에서의 일반적인 반응은 로마족들은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렇게

말했다. “그러니까 좌파 정부이든 우파 정부이든 강제 철거가 인기있는 정책이지요. 그렇게 해서 큰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sup>23</sup>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한 것은 아니었다. 2005년에 12개 유럽 정부들과 몇 개의 국제 연합 기관들이 “로마족 포용 10년”(“The Decade of Roma Inclusion”)이라는 계획을 시작했는데 이것은 정부, 민간, 시민 사회 단체들이 연합해서 로마족의 교육, 건강과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정부들은 가난, 차별, 성별 등의 핵심 문제들을 심각하게 다루도록 하였다. 그런데 많은 로마족들이 이 10년 계획과 실행에서 제외되었다고 느꼈고 비록 대륙 차원에서는 잘 준비된 계획이라도 국가 차원과 지역 차원의 행동으로 옮겨져야 하는데 로마족에 대한 정치 지도자들 사이에서의 적대감이 그대로 남아 있는 곳에서는 계획의 진전이 전혀 없었다.

“이 10년 계획은 전혀 우리들에게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불가리아와 루마니아의 연합감리교회 강리사로 있는 다니엘 토팔스키목사(Rev. Daniel Topalski)는 말했다. “그 계획은 우리들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외국에서 만든 것입니다. 그것은 회의를 하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보고서를 쓰기 위한 구실에 불과합니다. 만약 로마족들에게 10년 계획에 대해서 물어보면 그들은 그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거나 그것은 백인들이 자기들을 앞세워서 돈을 버는 일로 볼 것입니다.”<sup>24</sup>

많은 정부에서는 10년 계획에서 세운 이정표에 따라 실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계획을 2015년 까지 연장해야 했다. 그리고 심지어는 프랑스와 독일같은 나라들을 더 포함시켜 확대시켜야 했다. 다른 제안들을 보면 더 극단적인 해결책도 있다. 유럽 로마족 현장을 만들어 특정 지역에 속하지 않은 로마족 국가를 만들고 로마족에게 시민권을 부여하자는 것이다. 국제 사회에서는 그러면 중간 단계의 다른 나라들을 통하지 않고 직접 로마족들과 연결할 수 있게 된다는 주장이다. 이것은 각국 정부들을 현재 그들이 제공하지도 않은 많은 공공 서비스의 부담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고 아직 그 능력을 보여준 적이 없는 로마족의 정치적 단체가 성숙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것은 동시에 어떤 통합의 노력에도 조종을 올리게 되는것이다.

### 로마족 십대아이를 추방한 프랑스

10년 계획이 실패하고 유럽 전역에서 인종차별이 다시 고개를 든 것은 1천 2백만의 유럽에 있는 로마족의 삶을 개선하는 일에 암담한 미래를 보여주고있다. 그러나 몇 몇 희망의 조짐도 보인다. 그 중 가장 희망적인 것은 프랑스에서 정부가 견학을 나간 십대 아이를 잡아서 그 여자아이가 알지도 못하고 말도 통하지 않는 다른 나라로 추방한 직후에 시작된 군중 집회이다.

레오나르다 디브라니(Leonarda Dibrani)는 15살 된 여자아이인데 4년전에 코소보(Kosovo)에서 부모님과 다른 5 형제 자매들과 함께 프랑스로 왔다. 그들의 탈주로가 유럽 연합의 일부가 아니었기 때문에 가족들은 난민 신청을 했다. 그들의 신청은 기각되었다. 난민 신청 시한이 2013년 10월에 만료되자 프랑스 경찰이 집에 도착해서 그 가족을 본국으로 송환하였다. 그러나 그 때 레오나르다는 학교에 있었다—사실은 자기 반 학생들과 함께 견학을 하고 있었다. 경찰은 그녀의 위치를 추적하여 학교 버스를 세우고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그 아이를 끌어 내렸다. 레오나르다와 그녀의 가족은 그 날 밤에 코소보로 가는 비행기에 탑승하게되었다. 레오나르다의 급우들과 선생님들은 자기들이 목격한 것에 관해서 증언하였고 수천명의 프랑스 젊은이들이 항의 시위를 하러 거리로 나왔다.<sup>25</sup>

공식 조사 결과 경찰은 법 집행을 공정하게 했음이 밝혀졌지만 올랑드 대통령(President Hollande)은 “집행 과정에서 사려가 부족했다”<sup>26</sup>라고 시인했다.

비록 여론 조사 결과 대다수는 추방을 지지했지만 올랑드는 비판에 대응해서 레오나르다에게 본인이 원하면 돌아와서 학업을 마칠 수 있다고 말을 하면서 단 가족들은 올 수 없다고 했는데 이 결정은 아무도 만족시키지 못했다.

프랑스 라디오 방송국과의 인터뷰에서 레오나르다는 코소보에서 완벽한 프랑스어 발음으로 대답했다: “나는 경찰이 거기 왔을때 친구들이 마치 내가 무엇이라도 훔친 것처럼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는데 정말 창피했어요.”<sup>27</sup>

만약 레오나르다의 추방 사건이 어느 정도의 연대감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이라면, 적어도 그 뉴스 표면에 나타난 사실은 고정관념과는 다르다는 점에서 유럽 전역에 희망의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독일에서는 새로운 국가 차원의 협상이 진행되어 역사적으로 로마족을 차별하고 폭력을 행사해 왔음을 부정하던 차원에서 소수 민족인 로마족의 권리를 인정하고 그들만의 문화를 장려하는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 이 운동을 하는 이들은 수십년 전에 이민 와서 성공적으로 독일 사회에 동화된 로마족 가족들이 스스로를 로마족이라고 밝혀 주기를 희망하고 있다. 그러면 로마족들은 동쪽에서 온 가난한 새로운 이주민이라고 하는 고정관념이 없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우파의 혐오 집단에서 로마족들이 최근에 도착한 좀도둑이라고 주장하는 그 견해를 약화시킬 것이다. “로마족들은 유럽에서 700년 이상을 살아왔는데 우리들은 아직도 통합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아직도 자기 나라에서 외국인으로 취급을 받으니까요”라고 이반 이바노프(Ivan Ivanov)는 말했다. 그는 브뤼셀에 있는 유럽 로마족 연락 사무소(European Roma Information Office in Brussels)의 소장이다.<sup>28</sup>

동유럽에서의 관습은 로마족 아이가 오면 그들을 특수 교육 학습실로 보내는데 이것은 부정적인 낙인을 더 심화시키고 교육을 방해하는 것이된다. 그렇게 해서 부모들을 화나게 하고 로마족 활동가들이 대안을 더 강력하게 밀어부치도록 만든다. 세계 교회 협의회 (Church World Service, CWS)는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United Methodist Women)의 자금 지원에 힘입어 세르비아(Serbia)에 있는 로마족 여성들과 아동들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sup>29</sup>

세계 교회 협의회(CWS)는 심지어 수십명의 로마족 가족들이 벨그라드(Belgrade)의 시민회관에서 2012년에 추방될 때 그들과 동행했고 그들이 시의 외곽 지역에 있는 철제 선박 화물 운송용 컨테이너로 이주할 때도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 철제 선박 화물 운송용 컨테이너 중의 하나를 인수받아서 낮에는 유치원 교실로 쓰고 밤에는 어른들 글자 배우는 교실로 사용하고 있다.<sup>30</sup>

“세계 교회 협의회(CWS) 덕분에 우리들은 성공적으로 로마족들에게 접근해서 그들의 자녀들과 다른 취약한 아이들을 우리 교육 프로그램에 포함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 어린 아이들은 배우는 속도가 빨라서 진도도 잘 나갑니다. 그들은 일찍 세르비아 언어를 배우고 공동체에 더 빨리 적응하면서 더 성공적으로 사회화의 과정을 터득하고 있습니다”라고 미르하나 코식(Mirjana Cosich)은 말했다. 그녀는 나사 라도스트(Naša Radost) 유치원 원장인데 스메데레보(Smederevo)에 산다. “우리들은 아이들과 함께 일하는 동시에 그 부모들과도 일을 합니다. 부모님들이 우리의 유치원에 같이 와서 두려움 없이 교육 과정에 참여할 수 있고, 우리 일에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들 대부분은 여자들이지만, 역시 자기들 사이에서 다른 전통과 문화를 서로 나눕니다.”<sup>31</sup>



## 로마족이 문화의 도가니를 만나다

유럽의 담론을 지배해왔던 반 로마족의 정서는 현장에서 더 널리 느껴진다. 2012년에 에즈라 레반트(Ezra Levant)라는 보수적인 캐나다 정치 논객은 자기의 텔레비 토크 쇼인 <더 소스>(The Source)에서 로마족에 반대하는 열변을 토해냈다. “이 사람들은 집시들입니다. 문화적으로 사기꾼과 같은 사람이지요.” 그러면서 레반트(Levant)는 이어갔다. “집시라는 말과 사기꾼이라는 말은 역사적으로 너무 밀접하게 엮여 있어서 영어에서는 아예 동사로 사용되지요: 그 사람이 나를 속였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집시들이 우리들에게 바가지를 씌웠다는 말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여기와서 난민 행세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여기서 다시 우리에게 바가지를 씌우고 유럽에서 수세기에 걸쳐 해왔듯이 우리도 눈먼채로 강탈하는 것입니다...그게 집시족입니다. 그들의 문화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이라면 도둑질과 구걸입니다.”<sup>32</sup>

미국의 문화 투자들은 로마족보다는 히스패닉과 라티노 이민자들에게 더 몰두해 있는 것 같다. 로마족은 1800년도 초부터 몇 번의 물결을 타고 미국에 도착해서 지금 숫자로는 약 백만명이 된다. 어떤 로마족들은 그 보다 더 일찍 왔을 수도 있다: 세 명의 로마족이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1498년에 신세계를 향해 가는 두 번째 항해를 할 때 같은 배에 탔다고 기록이 되어있다. 그 이후로는 1864년에 발칸 반도에서 로마족 노예가 해방된 직후에 밀려온 물결이 가장 큰 수자였다. 최근에는 1989년 동유럽의 공산주의가 무너진 이후로 로마족 이민이 꾸준히 계속되고있다.

비록 로마족이 (미국에서는 보통 집시라고 하는데 공식명은 로마[Roma]임) 이국적인 문화와 연관되어 있기는 하지만 텍사스 대학(University of Texas)의 이안 행콕 교수(Professor Ian Hancock)는 한 때 유엔에 로마족 대변인으로 일한 경력도 있는 분으로 로마족들이 미국에서는 자기 문화를 고수하면서도 주변 세계에 동화되는 것이 상대적으로 쉽다고 말했다.

“미국이 이민자들의 나라이다 보니까 여러 배경의 사람들, 피부색이나 생김새가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지요.” 행콕(Hancock)교수는 <미국의 소리>(Voice of America)라는 방송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로마족들은 백인들처럼 생겨서 눈에 띄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족을 하나의 인종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의 생활양식이라고 생각하게 되지요.”

행콕은 텍사스 대학의 로마족 문서 및 역사 보관소(Romani Archives and Documentation Center)의 소장으로 있는데 대중 매체도 이런 왜곡된 인상을 조장하는데 일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중 매체들은 다른 소수 인종 그룹에 대해서는 감히 말할 수 없는 일들을 로마족에 대해서는 꺼림 없이 언급합니다.”<sup>33</sup>

<뉴욕 타임즈>(New York Times)가 1992년 도에 보고한 미국 내 58개 인종 현황보고에서 집시가 가장 밀바닥에 있었던 것도 놀랄 일은 아니다.<sup>34</sup>

가장 최근에는 미국내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 가운데 있는 로마족에 대해서 얻은 지식은 주로 <미국의 집시들>(American Gypsies)이라든지 <나의 거창한 집시족 결혼식>(My Big Fat American Gypsy Wedding)같은 텔레비 프로그램에서 배운 것이다. 기록 영화를 만드는 모나 니코아라(Mona Nicoară)에 의하면 이런 쇼들은 일종의 “다른 나라 풍습을 들여다 보고 싶어하는 마음을 충족시키는 것”(“exoticising voyeurism”)으로서 사실을 묘사하기 보다는 “흔히 볼 수 있는 기법들의 합성물: 널리 퍼진 고정관념, 인위적으로 조작된 갈등들, 일차원적인 극중 인물들의 성격 묘사들, 짜여진 장면들, 그리고 각본에 나온 대사들의 조합이다”<sup>35</sup>라고 말했다.

<가디언>(The Guardian) 잡지에 기고한 글에서 니코아라(Nicoară)는 그런 쇼의 제작자들에게는 정확성은 목표가 아니라고 말했다. 대신 그들은 “자기들의 청중들에게 ‘집시’라는 단어가 가지는 의미라고 생각되는 내용 중에서 가장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을 재현하는데 투자한다-에스메랄다 스타일의 (Esmeralda-like) 머리 스카프를 하고 배꼽 춤을 추고 선천적으로 폭력적이며 저속한 파티를 즐기고 주술 치료 방을 운영하는 등의 내용들이 그런것이다.”<sup>36</sup>

니코아라는 루마니아에서 자랐다. 거기서 로마족들은 1860년대 까지 노예 생활을 하였다. 그리고 제 2 차 세계 대전 동안에 처형을 기다리는 수용소에 보내졌다. 그리고 1990년대의 집단학살의 희생양이 되었다가 지금은 인종차별주의자들인 스킨헤드족의 공격 목표가 되어 있다. 그녀는 이렇게 적고 있다: 지금도 로마족 아이들은 “한쪽 구석에 분리된 학교에 갇혀서 가난과 권리를 박탈당한 삶의 악순환 이라는 덫에 걸려 있다.”<sup>37</sup> 로마족들은 계속해서 자신들이 주변부의 삶을 사는 것이 자기들 책임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쇼위 현실을 재현한다는 리얼리티 쇼들은 미국에서도 서서히 같은 일들을 하고 있다고 그녀는 말했다. 그들은 “로마족들의 전통이 얼마나 다른 지를 강조하고, 시청자들이 잘 모르는 것은 집시들이 비밀스럽기 때문이라고 왜곡한다. 자신들의 민족적인 정체성을 유지하는것을 호기심과 배움,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일, 사랑에 빠지는 일 등의 우리 인류 모두가 공통적으로 갖고있는 요소들을 인위적으로 조작해서 극단적으로 반대 되는 것으로 제시하여 로마족들이 스스로를 분리시키고 있다는 허구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니코아라는 여기에 2중 잣대가 적용된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면 영국에서는 <거창한 집시족 결혼식>(Big Fat Gypsy Weddings)의 마지막 회가 전자 광고판에 번쩍이면서 이렇게 광고되었다--“더 거창하고, 더 난잡하고, 더 집시다운 결혼식.” “만약 똑 같은 내용을 다른 인종 그룹에 대하여 광고했다면, 그 결과가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라.”고 니코아라가 말했다.<sup>38</sup>

미국에서는 흑인 인권 운동의 대명사인 로자 파크스(Rosa Parks)나 권투선수로 널리 알려진 조 루이스 (Joe Lewis)에 필적할만한 로마족 출신의 유명 인사가 없기 때문에 니코아라가 걱정하는 것은 리얼리티 쇼가 “사람들의 무지를 완전한 편견으로 바꾸어 놓지 않을까”하는 것이다. 그녀의 말에 의하면 영국의 쇼는 로마족이나 여행자들의 아이들을 왕따시키는 분위기를 이끌었고, 독립방송이 방송권을 가진 동유럽에서는 스킨헤드과 민족주의자들의 인종차별주의적인 폭력을 조장하였던 것이다.<sup>39</sup>

### 로마족의 부인과 자긍심

미국에 있는 로마족들은 다른 언어들을 사용하고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동일한 집단이 결코 아니다. 자기들을 통틀어 로마족이라고 따로 구분하기 보다는 그들은 국적, 언어, 혹은 다른 공통 분모에 따라서 지리적으로 같은 지역에 뭉쳐서 사는 경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족으로 구분되기 보다는 슬로바키아 사람들(Slovaks), 그리스 사람들(Greeks) 혹은 루마니아 사람들(Romanians)이라고 스스로를 부르기를 선호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 자신들에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 때문이다. 뉴저지 같은 곳에서는 1917년에 발효된 법이 1998년에 폐지될 때까지 지방 정부가 로마족들이 임대할 수 있는 지역,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지역, 그리고 판매할 수 있는 물품까지 규제할 수 있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로마족들은 오늘날 불가리아에 있는 로마족들과 마찬가지로 자기들을 로마족이 아닌 다른 인종으로 부르는 것이 구체적으로 이익이 된다는 것을 알

있던 것이다.<sup>40</sup> “전통적으로 로마족이라고 불려서 좋을 것이 없었지요. 왜냐하면 편견이 너무 심했으니까요.” 로버트 쿠셴(Robert Kushen)은 유럽 로마족 인권 센터(European Roma Rights Center) 총무로 있는데 <타임>(Time)지와 인터뷰에서 그렇게 말했다. “아무런 유익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많은 미국 시민들이 자기들 마을에 살고 있을 수도 있는 로마족들을 거의 인식하지 못하는 이유 일 것이다. “미국에서는 누가 미워할 만큼 로마족의 수가 많지 않습니다”라고 쿠셴은 말했다.<sup>41</sup>

그러나 자신들을 로마족이 아닌 다른 것으로 치부한다고 해서 미국에 있는 로마족들이 동화되는 것에 전적으로 충실한 것은 아니다. 사실 많은 곳에서 그들은 자기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는다. 1975년에 <사회 언어학 분야의 주목할만한 논문들>(Working Papers in Sociolinguistics)이라는 책에 기고한 논문에서 행콕(Hancock) 교수는 그리스 출신의 루다리족 로마족인 닉 디마스(Nick Dimas)를 인용하고 있다.

“그들은 학교 제도를 마치 역병처럼 피합니다. 대부분의 미국의 다른 소수민족 들은 자녀들을 위한 더 나은 교육을 보장받기 위해서 불매운동도 하고 버스 승차 거부도 하고 조직적인 운동을 하는데 로마족들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써서 아이들을 집에 둡니다”라고 디마스는 적고 있다.<sup>42</sup>

그의 주장에 따르면 이런 행동이 집단의 통일성과 연대성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로마족이 아닌 교사들이 로마족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주류 문화의 문헌에 기록된 비로마족의 역사나 영웅들과 아이들이 일체화하는 것을 막고, 로마족들이 자기 개인들의 모국어를 계속 사용하는 것을 확실하게 해서 (그래서 아이들이 항상 다른 로마족과 대화를 할 것이고) 직업을 통한 주류 사회로의 진입을 제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제한된 교육을 받으면 보수도 적고 천한 일밖에는 직업을 가질 수 없고 비로마족 사람들과의 결혼도 잘 못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나이든 세대는 너무 많은 외부 교육이 자기들의 정체성을 약화 시켰고 영적인 의미에서 심지어 오염까지 시켰다고 느낍니다. 비로마족 세계와의 너무 많은 접촉은 심신을 약화시키고 사회적으로도 영향을 미칩니다.” 행콕 교수는 <미국의 소리>(Voice of America)에서 그렇게 말했다.<sup>43</sup>

같은 논문에서 존(John)이라고만 밝힌 한 로마족 남자는 이렇게 말한다. “누군가가 저에게 한 번은 이렇게 말했지요. 우리는 집시족이 될 수 있지만 미국 집시족이 되어야 한다구요. 그 사람말이 우리들은 집시 문화를 고집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미국인이 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집시로 남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집시 문화를 빼면 우리는 집시가 아닙니다. 그 문화가 우리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것입니다.”<sup>44</sup>

이러한 동화와 통합 과정에서 오는 긴장, 문화의 생존과 멸망의 과정에서 오는 긴장은 미국 전역에 있는 수많은 마을과 도시에서 계속 될 것이다. 젊은 로마족들은 아마도 그들의 선조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정체성과 민족성을 헤쳐나갈 길을 찾을 것이다.

크리스티아나 그리고레(Cristiana Grigore)는 루마니아에서 온 젊은 로마족 여인이다. 현재 테네시에 있는 대학에서 풀브라이트(Fulbright) 장학생으로 공부하고 있다. 크리스티아나는 자기가 미국에서 만난 대부분의 사람들은 로마족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들은 집시족은 알고 있지만 진짜 한 민족으로 알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그저 할로윈 복장이거나 일년에 한 번 연극 때 하는 역할 정도로 알고 있지요.” 이것이 그녀가 <미국의 소리>(Voice of America)에서 한 이야기이다.<sup>45</sup>

그리고레(Grigore)는 문화적 다양성이 인정되는 것을 보고 자신의 로마족 정체성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게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고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로마족임을 밝히는 것은 루마니아 보다 미국에서 더 안전했다.

“제가 저의 인종적인 정체성을 밝히는데 20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 그 부정적인 편견이 얼마나 강했는지를 짐작해 보세요.” 그리고레는 그렇게 말하면서 자신의 인종적인 문화 유산이 미국에서 큰 자산이 되었다고 말했다. “제가 내 자신을 집시라고 소개하면 사람들은 ‘와, 정말 멋있네’하는 반응을 보여요. 그건 마치 제 삶이 갑자기 더 흥미있는 것이 되는 것 같은 기분이예요.”<sup>46</sup>

*저자에 대해서:* 폴 제프리 목사(The Rev. Paul Jeffrey)는 연합감리교회의 선교사이며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에서 발간하는 잡지 <리스판스>(response)의 선임 기자이다. 20년 간을 남미에서 살았으며 현재는 워싱턴 주에서 살고 있다. 그의 블로그 주소는 [kairosphotos.com](http://kairosphotos.com) 이다.

# 부록

두다 질테나(Duda Giltena)는 34살이며 7명의 자녀가 있다. 10년 전 코소보(Kosovo)에서 벨그라드(Belgrade)로 건너왔다. 그녀와 그녀의 자녀들은 처음에는 종이 상자를 엮어 만든 집에 살았는데 2008년도에 제문 포에(Zemun Polje) 지역으로 이사를 하였다. 그들은 남의 땅에 집을 짓고 전선으로부터 전기를 훔쳐다가 썼다.

“저는 가족들이 하도 이사를 많이 다녀서 2학년 때 학교를 중퇴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공부를 하고 싶었고 나중에 다시 하려고 했지요. 1학년을 3번 다녔고 결국에는 포기했습니다. 저의 부모님들은 교육을 받지 못한 분들이었고 자기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학교에 보내지 않았지요. 부모님들의 생각에는 가정 형편도 가난하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데 무슨 공부냐는 거였어요. 그것도 맞는 말씀이지만 이런 모든 현실을 감안한다고 해도 저의 부모님들은 그저 자식들 교육시키는 것에는 도통 관심이 없으셨지요. 본인의 삶이나 우리들의 삶이나 운명에 맡기고 변화를 향한 열망이 없었지요. 최소한 시도하려는 생각도 없으셨어요. 그러나 이것은 단지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주변의 아이들이 자라난 보통 환경이지요. 그래서 제가 결혼할 때가 되어서 저는 저와 자라온 환경이 비슷한 사람을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우리 둘 다 학교를 가지 않았고 쓰고 읽고 계산할 줄을 몰랐지요... 정말 어려웠어요. 지원서를 쓸 줄도 모르고 구인 광고를 읽을 줄도 모르니 직장을 구하기도 힘들구요.” 질테나(Giltena)의 말이다.

2011년에 질테나(Giltena)는 세계 교회 연합회가 벨그라드에 있는 로마족들 정착지 몇 곳에서 성인들을 위해 만든 문맹 퇴치 프로그램에 등록을 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학생들은 초등학교 과목들을 배웠고 금요일 저녁에는 생활에 필요한 기술 훈련을 받았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제가 그 프로그램에 등록한 첫 여학생이었습니다. 저는 배우고 싶어서, 특히 쓰고 읽는 법을 배우고 싶어서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저의 선생님들은 저를 칭찬해주었지요. 그래서 더 배우고 공부를 잘하고 싶어졌습니다. 제가 쓰고 읽을 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밖에 나가서 직업을 구했습니다. 대단한 직장은 아니었지만 제 생애 최초의 직장이었지요. 저는 제문 포에(Zemun Polje) 정착촌에 있는 빵집에서 일했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일이라는 것을 하고 수입이 생겼는데 무엇인가를 이루었다는 느낌을 가지고 제가 가족들에게 무엇인가를 공헌하고 가족들의 삶을 편하게 해 줄 수 있다는 것이 너무 뿌듯했습니다.”

질테나(Giltena)는 2013년 초에 학교 다니는 것을 그만 두었다. 가족 사정이 더 나빠진 것이다. 그녀의 남편은 자녀들과 그녀를 남겨두고 떠났다. 그녀는 이제 일곱 자녀를 혼자 돌보느라 애를 쓰고 있었고 수업들을 시간이 없었다. “제가 7학년과 8학년 두 학년만 더 다니면 졸업할 수 있었어요. 이제 아이들이 저를 바쁘게 만들었지요. 나의 두 어린 아들들은 계속 돌보아 주고 관심을 가져주어야 했습니다. 저는 집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데리고 가기에는 너무 어려웠지요. 그래도 언젠가는 초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시도에서 그만두고 싶지 않아요,” 라고 그녀는 말했다.

세계 교회 연합회(CWS)와 지역 파트너들은 질테나(Giltena)가 2년 더 교육을 받고 졸업장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개인 교습을 받고 집에서 숙제를 하는 동안 도와주는 이들을 보내주고 언어를 배우고 공부하는 것을 지원해 준다. 바라기는 이렇게 맞춤형 지원을 통해서 질테나가 학업을 마쳤으면 하는 것이다. 비록 그녀가 자기 인생에서 현재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질테나는 자신이 교육을 마치기를 소원한

다. 왜냐하면 그녀가 원하는 것은 자신이 “자기 자녀들의 일차적인 선생님이 되고 싶기 때문이다.” 그녀는 그렇게 말했다. “저는 제가 그 아이들을 가르치고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 주고 그들의 숙제를 도와주고 싶어요. 저는 학교를 다니고 교육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이들이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질테나(Giltena)의 사진이 2013년 5월호 리스판스(*response*) 잡지 238쪽에 나와있다.

# 주석

<sup>1</sup> 에바 코세(Eva Cosse), “로마족에 대한 신화를 버려야 할 때,” 2013년 11월 4일자, <http://globalpublicsquare.blogs.cnn.com/2013/11/04/time-to-drop-the-roma-myths/>.  
두 번째 헤드라인은 그리스어에서 번역한 것인데 문맥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 고쳤음을 양해 바람.

<sup>2</sup> 나탈리 사바리카스(Nathalie Savaricas), “그리스에서 오래된 태도가 다시 등장하다: 마리아 “금발의 천사”가 살았던 로마족 마을의 내부 취재,” <인디펜던트>(The Independent), 2013년 10월 23일자, <http://www.independent.co.uk/news/world/europe/old-attitudes-resurface-in-greece-inside-the-roma-camp-where-maria-the-blonde-angel-lived-8897530.html>.

<sup>3</sup> 에바 코세(Eva Cosse), “로마족에 대한 신화를 버려야 할 때,” <씨엔엔>(CNM) 2013년 11월 4일자, <http://globalpublicsquare.blogs.cnn.com/2013/11/04/time-to-drop-the-roma-myths>.

<sup>4</sup> 헨리 맥도날드(Henry McDonald), “아일랜드 경찰 금발의 아이를 로마족 가족에게 돌려주다,” 2013년 10월 23일자, <http://www.theguardian.com/world/2013/oct/24/blonde-girl-roma-parents-returned-dna>.

<sup>5</sup> 폴 왈디(Paul Waldie), “폭발적인 관심을 끈 아이들의 이야기는 유럽이 가진 로마족에 대한 반대 편견을 드러냈다,” <더 글로브 앤 메일>(The Globe and Mail), 2013년 10월 31일자, <http://www.theglobeandmail.com/news/world/high-profile-stories-of-children-expose-europes-anti-roma-prejudice/article15200641>.

<sup>6</sup> 앞의 글.

<sup>7</sup> “로마족은 누구인가?” 로빈 영(Robin Young)의 인터뷰, <내셔널 퍼블릭 라디오>(National Public Radio), 2013년 10월 24일자, <http://hereandnow.wbur.org/2013/10/24/who-are-roma>.

<sup>8</sup> 앞의 글.

<sup>9</sup> 카루냐 파라마구루(Kharunya Paramaguru), “유럽의 로마족은 어린이 유괴 사건 보도 후에 ‘마녀 사냥’에 시달린다,” <타임>(Time), 2013년 10월 23일자, <http://world.time.com/2013/10/23/europes-roma-face-witch-hunt-after-reports-of-child-snatching>.

<sup>10</sup> 알리샤 루빈(Alyssa J. Rubin), “사라진 버섯의 의문이 프랑스인들의 로마족에 대한 비난으로 이어짐,” <뉴욕 타임즈>(New York Times), [http://www.nytimes.com/2013/11/28/world/europe/mystery-of-missing-mushrooms-leaves-french-blaming-roma.html?\\_r=0](http://www.nytimes.com/2013/11/28/world/europe/mystery-of-missing-mushrooms-leaves-french-blaming-roma.html?_r=0).

<sup>11</sup> 앞의 글.

<sup>12</sup> “베를린에서의 로마족,” 2013년 7-8월호 <리스판스> (*response*) 28-34쪽을 보라.

<sup>13</sup> 토마스 로데미어(Thomas Rodemeyer) (중부 및 남부 유럽 지역의 연합감리교회 로마족 선교회 담당자이자 연합감리교회 유관 로마족 사역 연차 총회 참석자임. 가장 최근에는 2013년 11월 불가리아의 바르나 [Varna, Bulgaria]에서 열렸음), 저자와의 인터뷰, 2013년 11월.

<sup>14</sup> “다시 로마족을 속죄양으로 삼다,” <뉴욕 타임즈>(New York Times), 2013년 10월 17일자, <http://www.nytimes.com/2013/10/18/opinion/scapegoating-the-roma-again.html>.

<sup>15</sup> 조지 소로스(George Soros), “유럽은 로마족의 노동력 계층을 필요로한다,” 2013년 11월 26일, <http://www.theguardian.com/business/2013/nov/26/europe-roma-working-class-george-soros>.

<sup>16</sup> 케노 베르섹(Keno Verseck), “헝가리의 인종차별 문제: 오르반(Orbán) 친구는 로마족은 존재가 허용되어서는 안된다고 한다,” <슈피겔 온라인>(Spiegel Online) 2013년 1월 11일 <http://www.spiegel.de/international/europe/hungarian-journalist-says-roma-should-not-be-allowed-to-exist-a-876887.html>.

<sup>17</sup> 벤자민 와인탈(Benjamin Weinthal), “헝가리 신문에 실린 반유대인 사설, 분노를 자아내다,” 2011년 8월 4일자, <http://www.jpost.com/Jewish-World/Jewish-News/Anti-Jewish-tirades-at-Hungarian-newspaper-provoke-outrage>.

<sup>18</sup> “히틀러와 관련된 그의 연설 이후 부두레이는 장관직을 사임하였다(Après ses propos sur Hitler, Bourdouloux démissionne de l’UDI),” <르 몽드>(Le Monde) 2013년 7월 25일자, [http://www.lemonde.fr/politique/article/2013/07/24/apres-ses-propos-sur-hitler-gilles-bourdouloux-demissionne-de-l-udi\\_3453152\\_823448.html](http://www.lemonde.fr/politique/article/2013/07/24/apres-ses-propos-sur-hitler-gilles-bourdouloux-demissionne-de-l-udi_3453152_823448.html). 또한 “가라는 말을 들을 때: 프랑스에서의 로마족의 강제 철거,” 국제 사면 위원회, 2013년 10월 8일자를 보라, <http://www.amnestyusa.org/research/reports/told-to-move-on-forced-evictions-of-roma-in-france>.

<sup>19</sup> 안토니 파이올라(Anthony Faiola), “이태리가 로마족을 진압한 것은 유럽에서의 반이민 정서가 상승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워싱턴 포스트>(The Washington Post) 2010년 10월 12일, <http://www.washingtonpost.com/wp-dyn/content/article/2010/10/11/AR2010101105815.html>.

<sup>20</sup> “여론 조사는 로마족에 관한 태도를 드러내준다,” 세계은행, <http://go.worldbank.org/ELVUPU6V80>.

<sup>21</sup> “주제(Betr.): 로마족” <슈피겔>(Der Spiegel), 2012년 4월 2일자, <http://www.spiegel.de/spiegel/print/d-84631720.html>. 또한 “베를린의 로마족은 관용이상을 원한다,” <http://www.dw.de/berlins-roma-want-more-than-toleration/a-15665087>를 볼 것.



<sup>22</sup> “프랑스: 강제 철거로부터 보호할 것,” 국제 사면 위원회, 2013년 11월 29일

<sup>23</sup> “누가 로마족인가?” <여기 그리고 지금>(Here & Now).

<sup>24</sup> 다니엘 토폴스키(Daniel Topalski) (불가리아 및 루마니아의 연합감리교회 감리사), 저자와의 인터뷰, 2012년 11월.

<sup>25</sup> 알리샤 루빈(Alyssa J. Rubin), “프랑스 정부는 로마족 소녀의 추방이 합법적이라고 말한다,” <뉴욕 타임즈> (New York Times) 2013년 10월 19일자, <http://www.nytimes.com/2013/10/20/world/europe/france-says-deportation-of-roma-girl-was-legal.html>.

<sup>26</sup> 앞의 글.

<sup>27</sup> “로마족들의 행진,” <부루나이 타임즈>(The Brunei Times) 2013년 10월 23일자, <http://www.bt.com.bn/opinion/2013/10/23/roma-row>.

<sup>28</sup> 케이티 해리스(Katie Harris), “유럽의 로마족들의 경우에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인종차별이 더 심해지고 있다,” <타임>(Time) 2013년 8월 21일자, <http://world.time.com/2013/08/21/roma-in-europe-age-old-discrimination-worsens-in-tough-economic-times>.

<sup>29</sup>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에 보내는 프로젝트에 관한 보고서에서 세계 교회 연합(Church World Service)은 한 참가자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 두다 길테나(Duda Giltena)라는 여인의 이야기와 세계 교회 연합이 어떻게 그녀를 도왔는가 하는 것은 부록 (Appendix A)에 포함되어 있다.

<sup>30</sup> 이 공동체를 방문했던 개인적인 기록을 보려면 <http://www.kairosphotos.com/blog/roma-redux/> 참조하라.

<sup>31</sup> 미르하나 코식(Mirjana Cosich), (나사 라도스프[Naša Radost] 유치원 원장. 스메데레포[Smederevo] 에 있음), 저자와의 인터뷰, 2012년 11월. <https://vimeo.com/56844753>에 포함되어 있음

<sup>32</sup> 버니 파버(Bernie M. Farber), 네이트 레입시거(Nate Leipziger), 아브룸 로젠바이히(Avrum Rosensweig) 공저, “버니 파버(Bernie M. Farber) 외: 유대인 혐오와 ‘집시’ 혐오,” <내셔널 포스트>(National Post) 2012년 9월 25일자 <http://fullcomment.nationalpost.com/2012/09/25/bernie-m-farber-et-al-hating-the-jew-hating-the-gypsy>.

<sup>33</sup> “로마족들에게 미국에서의 삶은 어려운 점들이 있다,” 미국의 소리, 2011 4월 6일자, <http://www.voanews.com/content/for-roma-life-in-us-has-challenges-119394819/163156.html>.

<sup>34</sup> 이안 행콕(Ian F. Hancock), “동유럽에서의 로마족들에 대한 인권유린에 관하여,” 로마족 역사 및 문헌 보존 센터(Romani Archives and Documentation Center), 1994년 4월 14일,  
[http://www.radoc.net/radoc.php?doc=art\\_f\\_bias\\_mediaresponsibility&lang=en&articles=true](http://www.radoc.net/radoc.php?doc=art_f_bias_mediaresponsibility&lang=en&articles=true).

<sup>35</sup> 모나 니코아라(Mona Nicoară), “미국의 집시들은 로마족들의 삶의 현실을 알 필요가 있다,” <가디안>(The Guardian) 2012년 7월 28일자,  
<http://www.theguardian.com/commentisfree/2012/jul/28/american-gypsies-reality-roma-lives>.

<sup>36</sup> 앞의 글.

<sup>37</sup> 앞의 글.

<sup>38</sup> 앞의 글.

<sup>39</sup> 앞의 글.

<sup>40</sup> “누가 로마족인가? 불가리아에서는 점증하는 인종차별이 많은 사람들에게 정체성을 바꾸도록 한다,” <리스판스>(response) 2013년 5월호, 20-25 쪽.

<sup>41</sup> 카이라 웨블리(Kayla Webley), “유럽에서의 악몽때문에 미국에서 조용히 지내는 로마족,” <타임>(Time) 2010년 10월 13일, <http://content.time.com/time/nation/article/0,8599,2025316,00.html>.

<sup>42</sup> 이안 행콕(Ian Hancock), “미국 로마족들의 학교제도: 개관,” 로마족 역사 및 문헌 보존 센터(Romani Archives and Documentation Center), [http://www.radoc.net/radoc.php?doc=art\\_g\\_education&lang=en&articles=true](http://www.radoc.net/radoc.php?doc=art_g_education&lang=en&articles=true).

<sup>43</sup> “로마족들에게 미국에서의 삶은 어려운 점들이 있다,” 미국의 소리(Voice of America)

<sup>44</sup> 앞의 글.

<sup>45</sup> 앞의 글.

<sup>46</sup> 앞의 글. 또한 옥사나 마라피오티(Oksana Marafioti) <미국의 집시들: 회고록>(American Gypsy: A Memoir) (뉴욕, 파라르, 스트라우스 앤 지루, 2012).